

현 경 실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의
타당도 조사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석 순

한국음악적성검사(KMAT)의 타당도 조사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석 순

인 준 서

강석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음악적성은 음악학습의 여부에 상관없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학습자의 음악적성을 알면 음악성취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예상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음악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는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검사하여 효율적인 음악교수-방법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음악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적성 검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적성 검사인 현경실의 KMAT점수와 학생들의 음악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KMAT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M 초등학교의 3~4학년 159명에게 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섯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든 가창 체재곡의 평가기준에 의해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했다. 평가기준은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의 세 가지 영역별로 나뉘며 각 영역에 속한 네 가지의 요소를 모두 정확히 하면 5점이고, 하나의 요소를 하지 못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하는 것으로 하였다. 3학년의 체재곡은 ‘소풍’이고, 4학년의 체재곡은 ‘종달새의 하루’이다.

채점 결과를 토대로 SAS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초등학교 학생들의 KMAT 리듬 검사의 평균은 20.58, KMAT 가락 검사의 평균은 22.92로 가락 검사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둘째, KMAT의 신뢰도는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가 .85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79로 적성검사로써 높게 나왔다.

셋째, 난이도의 평균이 리듬 검사는 68.9%, 가락 검사는 77.3%로 M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리듬 검사보다 가락 검사의 문항이 조금 더 쉬웠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창을 통한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는 리듬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2, 가락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8, 음악적 표현영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5이었다. 이로서 채점자들이 일관성있게 채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리듬이 .305, 가락이 .332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KMAT와 음악성취도 검사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p < .01$ 에서 상관이 있었으므로 KMAT가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검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 KMAT가 음악적성 검사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더불어 이후로도 KMAT의 타당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는 결론을 얻기는 하였으나 더 객관적인 음악성취도 검사를 개발하여 KMAT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 환경, 음악 등을 고려한 음악적성 검사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고려한 음악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나아가서는 음악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제안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연구의 제한점	5
4. 용어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7
1. 음악적성	7
1) 음악적성의 개념	7
2) 음악적성의 특징	9
3)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의 종류	10
2. 음악성취	17
1) 음악성취의 정의	17
2) 음악성취 검사의 종류	17
3. 선행연구 고찰	2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1
1. 연구 대상	31
2. 연구 도구	31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31
2) 음악성취도 검사	35

3. 연구 절차	52
4. 연구 분석 방법	5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55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분석결과	55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55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신뢰도	56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	57
2. 음악성취도 검사의 분석결과	62
1)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62
2) 음악성취도 검사의 체점자 신뢰도	63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공인타당도	64
1) 3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64
2) 4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65
3) 3, 4학년 전체의 KMAT의 공인타당도	66
V. 결론 및 제언	67
1. 요약 및 결론	67
2. 제언	70
3. 후속연구	7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KMAT 점수의 종류	34
〈표 2〉 표준점수의 구성	34
〈표 3〉 3학년 ‘소풍’의 첫 번째 평가기준	38
〈표 4〉 3학년 ‘소풍’의 네 번째 평가기준	39
〈표 5〉 3학년 ‘소풍’의 다섯 번째 평가기준	40
〈표 6〉 4학년 ‘종달새의 하루’의 첫 번째 평가기준	43
〈표 7〉 4학년 ‘종달새의 하루’의 네 번째 평가기준	44
〈표 8〉 4학년 ‘종달새의 하루’의 다섯 번째 평가기준	45
〈표 9〉 3학년 ‘소풍’의 최종적인 평가기준	48
〈표 10〉 4학년 ‘종달새의 하루’의 최종적인 평가기준	51
〈표 11〉 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56
〈표 12〉 KMAT의 신뢰도 비교	57
〈표 13〉 학년별 문항난이도 분포	58
〈표 14〉 KMAT의 문항난이도	59
〈표 15〉 KMAT의 문항변별도	61
〈표 16〉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62
〈표 17〉 음악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63
〈표 18〉 3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65
〈표 19〉 4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65
〈표 20〉 3, 4학년 전체의 공인타당도	6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음악적성이 높으면 그 학생의 음악적인 경험이나 음악에 대한 흥미, 주변 여건 등에 상관없이 ‘똑똑하다’, ‘지능(IQ)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낮으면 음악적성도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은 음악성이 있다.’, ‘저 학생은 음악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음악성, 즉 음악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음악적성이 높으면 음악학습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학습에 대한 성취도 높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적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학자들마다 달리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음악적성을 ‘천부적인 능력’이라 하였으며, 보일과 래도시(Boyle & Radocy, 1987)는 ‘유전적인 재능과 자연적 성장에 더불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발달되는 음악적 기술의 결과’라 하였고, 고든(Gordon, 1993)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음악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가지의 음악적성 검사를 만들었으나,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는 미국의 시쇼어(Seashore)가 제작한 ‘음악재능검사’(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 1919)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음악적성 검사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많이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외국의 음악적성 검사 중 대표적인 것은 고든

(Gordon)의 음악적성 프로파일(MAP :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1965)과 음악 오디에이션의 기초검사(PMMA :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79), 음악 오디에이션의 중급·고급검사(IMMA :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2 & AMMA: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9)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경실 · 석문주(HSMAT : Hyun & Seog Musical Aptitude Test, 1997)¹⁾, 유덕희(음악재능 검사, 1973)²⁾ 등에 의해 음악적성 검사의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로 인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현경실이 고든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기초검사(PMMA)와 음악 오디에이션의 중급검사(IMMA)를 모델로 하여 한국 음악적성 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 2004. 이하 KMAT)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현경실의 1992년³⁾과 1993년⁴⁾의 연구와 현경실 · 석문주의 1995년⁵⁾, 1996년⁶⁾ 연구에서 외국(고든)의 음악적성 검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국악을 포함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오랜 연구기간을 통해 개발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악적성 검사로 표준화되어 출판된 검사이다.

1) 현경실·석문주. (1997).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3학년 학생들 위한 음악적성검사개발”, 음악교육연구 제16집. pp.119~145.

2) 유덕희. (1973). “음악재능검사의 실용화를 위한 실험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집. pp.19~34.

3) 현경실. (1992). “A two-year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for use in Korea”, Temple university.

4) 현경실. (1993). “한국학생들에 대한 고급 오디에이션능력검사 사용가능성 조사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2집. pp.165~187.

5) 현경실·석문주. (1995). “교회음악과 심화과정 학생들을 위한 음악적성검사 적용가능성”, 국악교육 제13집. pp.181~202.

6) 현경실·석문주. (1996). “음악적성검사 개발을 위한 Intermediate Measures Music Audiation과 Musical Aptitude Profile의 타당도 연구”, 연세음악연구 제4집. pp.149~173.

현경실은 서양음악과 국악의 요소를 포함한 검사야 말로 우리나라 학생의 음악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 맞는 음악적성 검사의 개발로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경험, 음악적성, 음악성취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음악교수-방법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음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를 만들었다.

음악적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음악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음악적성은 학습과 상관없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으로, 음악성취는 음악학습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로 정의되었다. 이 때문에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음악성취도 검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대표될 수 있으며 가창, 감상, 기악, 이론 등의 형태로 검사되어진다. 성취도 검사는 단순히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익혔는가를 알기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위해, 교사의 지도방법이 적절하였는지 등을 알기 위해 실시한다.

악기연주로 음악성취를 재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성취정도를 알아보는 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바른 주법과 바른 표현 방법으로 기악곡을 연주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창은 특별히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에 기술면에서의 장애나 문제가 악기활동에 비해 적다. 따라서 가창은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정도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음악 활동이며 보편적인 음악성취도구로 사용된다.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헝가리)는 음악은 참여를 통해 경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노래

부르기'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음악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중략-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런 욕구이다.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능력은 훌륭한 음악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어려운 다성부의 악곡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 가창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⁷⁾

길애경·임미경(1997)도 초등학교에서 가창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어린이들이 음악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소리는 좋은 악기이고, 둘째, 가창력은 말하기, 쓰기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이 신체적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며 셋째, 가창은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자 사회적 기술이기도 하다고 하였다.⁸⁾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창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창 활동은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가창이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음악학습의 성취정도를 가장 빠른 시간에 알 수 있는 활동이고,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를 검사했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적성 검사인 현경실의 KMAT점수와 학생들의 음악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KMAT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7)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pp.331~333.

8) 길애경·임미경. (1997). 초등 음악지도법. 서울:수문당, p.49.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둘째,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경기도 고양시 M 초등학교에서 3학년 83명, 4학년 76명, 총 159명만을 대상으로 음악적성 검사와 음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검사한 학교가 한 군데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3~4학년 모두에 본 결과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음악적성

음악적성이란 음악성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며, 고든(Gordon, 1993)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to learn music)’이라 한다. 따라서 음악적성, 음악성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음악을 배울 경우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말한다.⁹⁾

2) 음악성취도

음악성취도란 어떤 사람이 음악을 얼마만큼 현재까지 배웠느냐 하는 현재의 학습성취 정도를 말한다.¹⁰⁾

3) 공인타당도

어떤 검사 또는 측정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타당도라고 한다. 즉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정보를 어느 정도나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타당도의 유형에는 내용 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구인타당도의 네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공인타당도를 조사한다. 공인타당도란 기존의 검사와 현재의 새로운 방법을 비교하여 그 둘의 유사성, 상관성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9)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학지사. p.21.

10) 현경실. (2004). 전제서. p.22.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음악적성이란 무엇이고, 특징은 어떠한지,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악성취란 무엇이며 성취도 검사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음악적성

1) 음악적성의 개념

음악적성이란 ‘음악성’, ‘음악적 능력’, ‘음악적 감각’, ‘음악적 감성’, ‘음악 소질’등 여러 단어로 불린다. 이렇게 음악적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많듯이 학자들 마다 음악적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있다.

유태희는 자신의 저서 「음악교육론」(1983, 서울:개문사)에서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심성을 표출적 기능과 심정적 기능으로 나누고, 표출적 기능에 ‘음악성(musicality)’,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 ‘음악적 재능(musical talent)’, ‘음악적 자질(musical capacity)’, ‘음악적 적성(musical aptitude)’ 등을 포함시키고, 심정적 기능에 ‘음악적 심정(musical mind)’, ‘음악적 기호(musical taste)’, ‘음악적 감성(musical sensibility)’, ‘음악적 정동(musical emotion)’, ‘음악적 감정(musical feeling)’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출적 기능의 ‘음악적 재능’, ‘음악적 자질’, ‘음악적 적성’은 음악성 또는 음악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특출한 능력을 뜻하며 음악성 또는 음악적 능력이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심정적 기능의 ‘음악적 기호’, ‘음악적 감성’은 ‘음악적 정서’와 함께 음악적 심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음악적

감성'과 '음악적 감지력' 또는 '느낌(feeling)'은 음악성에 속하는 능력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머셀(J. Mursell)은 「음악교육 심리학」(The Psychology of School Music, 1931)에서 음악성은 유전된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음악적인 능력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음악과 결부됨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였다.¹²⁾

시쇼어(C. E. Seashore)는 「음악심리학」(The Psychology of Music)에서 음악적 능력은 음악에 대한 보편적 능력으로 이것은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¹³⁾

런딘(R. W. Lundin)은 「음악심리학 실제」(An Objective Psychology of Music, 1953)에서 음악적 능력은 음의 장단, 고저, 화음 등의 변별력이나 시창력, 연주능력과 같이 학습에 의하여 그 척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음악적 자질은 선천적이고 음악적 능력은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¹⁴⁾

레베즈(Revez)는 음악적 능력이 음악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으나, 「음악심리학 입문」(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Music, 1946)에서 음악성을 음악적 소질과 음악적 재능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환경 및 학습과 연결되어 일어나는 “타고난” 내재적 음악능력을 의미하고, 후자는 “발달하여” 돋보이는 성취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⁵⁾

고든(Gordon, 1988)은 음악적성을 음악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이라

11)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pp.176~177.

12) 이홍수. (1990). 전계서. p.91.

13) 유수영. (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악환경과 음악적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7.

14) 김현정. (1997). HSMAT와 MAP상관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7.

15) 주대창. (2000). “음악성의 음악교육적 의미”. 음악과 민족 제19호. p.2

<http://www.um-ak.co.kr/gong/nonmun/ju-umaksung.htm>

정의하고 음악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이는 음악 경험에 의해 더욱 발달한다고 하였다.¹⁶⁾

전통적인 음악적성의 정의는 “천부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래도시와 보일(Radocy & Boyle, 1987) 또한 음악적 자질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후천적 요인인 음악적 능력을 세분화하면 자질과 비형식적인 환경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것을 음악적성으로, 자질과 환경적 요인, 형식적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을 음악적 능력이라 정의하였다.¹⁷⁾ 따라서 래도시와 보일에 의하면 음악적성은 ‘유전적인 재능과 자연적 성장에 더 붙어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발달되는 음악적 기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음악적성은 음악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으며, 이는 음악적 능력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악적 경험들에 의해 발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음악적성의 특징

음악적성의 특징에 대해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든이 정리를 하였다. 고든이 밝힌 음악적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⁸⁾¹⁹⁾

첫째, 정상인이면 누구나 음악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음악적성은 음악 학습과 상관없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다. 어린아이가 들리는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16) 배성애. (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7.

17) 보일과 래도시(J. D. Boyle & R. E. Radocy). 음악적 경험의 측정과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al Experiences*). New York:The Royal Press Company. 1987. p.139.

18) 고든(Edwin E. Gordon). 「음악적성의 본질, 기술, 측정 그리고 평가」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87. pp.12~13.

19)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학지사. pp.23~24.

둘째, 음악적성은 높고 낮음의 양분이 아니라 68%는 평균, 14%는 평균보다 높은, 14%는 평균보다 낮은, 2%는 아주 높은, 2%는 아주 낮은 정상적인 분포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인 음악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근본적인 인유는 알 수 없지만 타고나는 음악적 자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성을 알면 그의 능력에 알맞게 교육하여 높은 음악성취를 이루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음악적성은 9세까지 발달한다. 고든은 9세 이전의 음악적성을 유동음악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이라 하고, 9세 이후의 음악적성을 고정음악적성(Stabilized Music Aptitude)이라 하였다. 9세 이전에는 음악적 환경과 경험에 의해 음악적성이 변화하고 개발되나 9세 이후에는 음악적성이 환경과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섯째, 음악적성은 지능과 상관이 거의 없다. 이는 슈터-다이슨과 가브리엘(Shuter-Dyson&Gabriel)의 연구(1981)와 현경실의 1990년 연구에서 밝혀졌다.

3)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의 종류

이 장에서는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들을 살펴보았다.

(1) 시쇼어의 음악재능 검사

(Seashore, The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 1919)

최초의 표준화된 음악적성 검사는 1919년 시쇼어에 의해 발간된 ‘음악재능 검사(The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이다. 그는 음악

적 재능이 순수한 소리를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믿어 청각의 식별력을 중시한 검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음악재능 검사’이다.

이 검사는 10세~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약 1시간 정도의 검사시간이 소요되며 음의 높이(Pitch), 음의 강도(Loudness), 음의 길이(Time), 협화감(Consonance), 음정기억(Tonal memory), 리듬기억(Rhythm Memory)의 여섯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939년 개정된 검사에서는 협화감을 음색(Timbre)으로 대신하였고 개정 전의 매우 다양하고 낮은 편이었던 신뢰도가 개정 후 .55~.85의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음정기억에서 높은 안면타당도를 보였다.

음의 높이 검사, 음의 강도 검사, 음의 길이 검사, 음색 검사는 50쌍의 문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 처음 음 보다 두 번째의 음이 높은가 낮은가를, 처음 음보다 다음 음의 강도가 더 센지 약한지 등 한 쌍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검사이다.

리듬기억과 음정기억 검사는 각 30쌍의 문제로 이들도 한 쌍의 문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검사로 리듬기억 검사는 2/4박자의 다섯개, 3/4박자의 여섯개, 4/4박자의 일곱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각 10쌍씩의 리듬패턴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정기억 검사는 세개, 네개, 다섯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가락이 10쌍씩으로 구성되어있다.

순수한 소리의 지각을 위해 전자 발진기(Audio Oscillator)를 사용하여 음악적인 관점이 아닌 음향학적인 관점에서 검사를 만들었다. 음높이 검사에서 두 음의 차이가 반음보다 작은 것이 많아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음정기억력 검사는 음악적이라기보다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검사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음악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라는 것과 음악적성 검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

(2) 칼와써-뒤케마의 음악 검사

(Kwalwasser-Dykema, Music Tests, 1930)

1930년에 제작된 음악성 검사로 청각적인 자극을 위해 오케스트라와 전자피아노를 사용하여 시쇼어에 비해 더욱 음악적이고,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나 신뢰도는 시쇼어의 검사보다 낮다. 이 검사의 구성은 다음 10가지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있으며, 마지막 네 가지의 하위검사는 음악의 구조감각, 균형감각, 프레이즈의 일치성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① 음고(Pitch Discrimination), ② 강약(Intensity Discrimination), ③ 음색(Quality Discrimination), ④ 리듬(Rhythm Discrimination), ⑤ 길이(Time Discrimination), ⑥ 음정기억(Tonal Memory), ⑦ 음정이동(Tonal Mouvement), ⑧ 선율의 선호(Melodic Taste), ⑨ 음고연상(Pitch Imagery), ⑩ 리듬연상(Rhythm Imagery)

음색검사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사용했다. 음정이동 검사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가락을 듣고, 종지음이 하행해결인지 상행해결인지를 판단한다. 선율의 선호검사에서는 두 개의 선율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음고연상, 리듬연상 검사는 연주가 녹음된 것을 듣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한다.

(3) 윙의 음악지능 검사

(Wing, The Standardized Tests of Musical Intelligence, 1961)

윙은 1939년에 첫 번째 검사를 출판하였으나 검사기간이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후에 개정하여 1961년에 ‘음악지능 검사’를 발표하였다.

그의 검사는 비선호도 검사와 선호도 검사로 나뉘어 평가되는데, 비선호도검사에는 화음분석, 음고의 변화, 음기억의 세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선호도검사에는 리듬 강세, 화성, 강약, 프레이징의 네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화음 분석 검사는 화음을 듣고 몇 개의 음으로 연주되었는지 총 6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음고의 변화 검사는 두개의 화음 중 두 번째 화음의 어느 음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아니면 같은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음의 기억 검사는 3~10개 음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가락에서 두 번째 가락의 어느 음이 잘라졌는가를 구별하는 것이고, 리듬 강세, 화성, 강약, 프레이징 검사들은 두 개의 보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검사는 피아노를 사용하였고, 음악적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쇼어의 검사와 구별된다. 신뢰도는 .70~.90이다.

(4) 드레이크의 음악적성 검사

(Drake, Musical Aptitude Test, 1954)

1954에 출판되고 1957년에 개정된 음악적성 검사로 8세~성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이며 음악 기억 검사와 리듬 검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 각각 A형과 B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음악 기억 검사는 피아노로 연주되는 가락을 듣고 연속적으로 연주되는 2~7개의 변형된 선율에서 조성(Key), 박자(Time), 음표(Note)가 변하였는

지 아니면 같은지(Same)를 답한다. 리듬 검사는 메트로놈과 같은 빠르기로 아나운서가 박을 세는 것을 듣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피험자는 속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숫자를 센 뒤 ‘그만’하면 그 숫자를 기록한다. 리듬 B형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동안 주위를 산만하게 하여 답하는 것으로 A형보다 어려워 5년 이상의 음악적 경험을 한 피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

A형의 신뢰도는 .83~.93, B형의 신뢰도는 .69~.96이다.

(5) 벤틀리의 음악적 능력 검사

(Bently, The Measures of Musical Abilities, 1966)

벤틀리는 1966년 영국에서 7~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적성 검사인 ‘음악능력 검사’를 발표하였다.

검사자료로는 전자 발진기(음고 구별 검사)와 오르간이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음고 구별, 음정 기억, 화음 분석, 리듬 기억의 네 가지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있고, 음고 구별에서는 시쇼어와 같이 전자 발진기를 사용하였다.

음고와 음정 검사는 시쇼어의 검사와 비슷하여 한 쌍의 음 또는 가락을 듣고 두 번째의 음 또는 가락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화음 검사는 웅의 검사와 비슷하게 하여 화음을 듣고 몇 개의 음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내용면에서 시쇼어와 웅의 검사를 혼용하고 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84이다.

(6) 고든의 음악적성 프로파일

(Gordon, MAP :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1965)

음악적성 프로파일(The Musical Aptitude Profile, 이하 MAP)은 초등

학교 4학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적성검사이다. 이는 선호도 검사와 비선호도 검사의 두 가지로 나뉘며, 선호도 검사의 하위 검사에는 음악적 감수성이 있고, 비선호도 검사의 하위 검사에는 음감과 리듬감의 두 검사가 있다.

음악적 감수성은 악절, 균형, 양식 세 가지의 하위 검사가 각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감에는 선율과 화성, 리듬감에는 빠르기와 박자의 두 가지 하위 검사가 40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율 검사는 쌍으로 된 하나의 문항에서 가락이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고, 화성검사는 바이올린 선율에 첼로 선율이 더해 졌을 때 첨가된 음들을 알아 각 쌍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빠르기와 박자 검사도 두 개의 가락패턴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것이고, 악절, 균형, 양식 검사는 두 가지의 연주를 듣고 어느 연주가 더 음악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답하게 되어있으며 잘 모르겠으면 '모름'에 표시하도록 답안지가 구성 되어있다.

MAP는 모두 고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사용하였고, 전문가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로 연주하였다. 음악적 감수성, 리듬감, 음감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이 약 1시간 정도로 3일 동안 한 시간씩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검사의 길이가 너무 길고 음악적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66~.96, 3년간의 예언타당도가 .38~.73으로 높은 편이다.

(7) 고든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기초검사와 중급·고급검사

(Gordon, PMMA :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79

IMMA :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2

AMMA :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9)

음악 오디에이션의 기초검사(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이하 PMMA)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음악적성 검사로 음감과 리듬감의 두 가지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음감검사는 리듬적 요소가 배제된 한 쌍의 높낮이로만 구성된 가락패턴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것이고, 리듬감검사는 음높이가 배제된 한 쌍의 리듬패턴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각 검사는 40문항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답안지를 사용한다. 신뢰도는 .60~.92이다.

음악 오디에이션의 중급검사(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이하 IMMA)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동들의 음악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9~10세의 아동에게는 PMMA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완하여 만든 검사로 PMMA와 검사 방법이 비슷하다. 신뢰도는 .70~.91이다.

음악 오디에이션의 고급검사(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이하 AMMA)은 13세~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음악적성 검사로서 두 개의 선율 패턴을 듣고 리듬이 다른지 음이 다른지를 찾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신뢰도는 .80~.89이다.

PMMA와 IMMA, AMMA는 물리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재현해 내는 능력, 즉 오디에이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들의 모든 문항은 고든이 곡을 직접 작곡하였으며 곡은 전자 악기(Sonic Six Moog Synthesizer)로 연주, 녹음되었다.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들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경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가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유일한 음악적성검사임이 드러났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사용한 도구이므로 연구 도구에 서술하였다.

2. 음악성취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음악성취도를 검사하여 KAMT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음악성취도 검사의 의의와 그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음악성취의 정의

음악적성은 음악적 잠재력이고, 음악성취는 학습자가 음악을 학습한 후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하는가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다. 음악성취는 기악, 음악 이론, 청음, 감상, 가창, 창작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가 얼마나 음악학습에 대해 성취를 했는가는 학습자의 음악성취도를 검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이론시험, 실기시험 등의 형태로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정도를 검사하고, 학교 이외의 교육시설에서는 급수시험이나 각종 콩쿨 등으로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정도를 검사한다. 음악성취도를 검사함으로써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어 그의 성취도 수준에 알맞은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2) 음악성취도 검사의 종류

학생들의 음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취도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

이어야 하고, 채점 또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출판되어 있는 음악성취도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출판된 음악성취도 검사를 살펴보았다.

음악성취듣기검사 (ADMAT : Aural Dictation Music Achievement Test, 1994)는 고든의 MAP를 한국 학생들에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경실이 만든 음악성취 검사로서 음악을 전공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음력을 검사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ADMAT의 하위검사는 음정과 리듬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정검사는 신디사이저(Synthesizer)로 녹음한 다장조와 가장조의 세 음 패턴으로 이루어졌고, 리듬 검사는 드럼 머신(Drum Machine)에 의해 녹음한 2/4, 6/8박자의 두 마디 패턴으로 이루어져있다. 음정검사는 온음표를 사용하여 음정을 그리도록 되어있다. 각 검사의 하위검사들이 16문항씩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검사 시간은 40분이 소요된다. 반분신뢰도가 .81~.97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²⁰⁾

아이오와 음악 능력 검사(ITML : Iowa Test of Music Literacy, 1970)는 여러 하위 검사로 구성된 복합 수준 음악성취 종합 검사로서 고든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평가 도구는 6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처음 3단계는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음 3단계는 7~12학년까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음조개념과 리듬개념의 두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은 청각, 지각, 기보법을 인식하는 검사로 이루어져있다. 이 검사는 학습 과정의 목표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도 형성 능력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단일 수준 검사보다 더 효과적이고, 음악성취의 성장과 상대적 위치의 평가를 위해서 가

20) 현경실. (1994). “음악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8집 제2호. pp.401~424.

장 기능적인 검사이다.

칼와씨-러크(Kwalwasser-Ruch)의 성취 검사(Test of Accomplishment, 1925)는 칼와씨(J. Kwalwasser)와 러크(G. Ruch)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음악 부호와 용어의 지시, 친숙한 선율에서 잘못된 음조의 인식, 친숙한 선율에서 잘못된 음 길이의 인식, 음이름의 인식, 음절이름의 인식, 조표의 지식, 박자표의 지식, 쉼표의 지식, 음가의 지식, 악보로부터의 선율의 인식 등 음악이론에 관한 성취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는 음악 기보법에서 높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콜웰(Colwell)의 기본적인 음악성취 검사(EMAT : Elementary Music Achievement Test, 1965)는 4~8학년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음악성취 검사로 청각적인 지각과 읽고 쓰는 능력의 기본적인 음악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각지각을 위한 검사에는 두 번째의 음이 처음 음보다 높은지 낮은지, 세 음들 중 어느 음이 가장 낮은지, 악구가 계이름대로 순차진행하는지 도약하는지, 2박계인지 3박계인지를 구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기본 음악지식에 관한 검사에는 들은 것과 악보를 비교하여 다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근음과 중지 또는 악구에 어울리는 음을 세 음들 중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장화음과 단화음을 구별할 수 있는가, 악구가 장조인가 단조인가, 장조에서 단조로 변화했는가 또는 단조에서 장조로 변화했는가를 판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²¹⁾

콜웰(Colwell)의 음악 성취 검사(MAT : Music Achievement Test,

21) 장재탁. (2001). 음악성 검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p.27~32.

1969)는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들을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졌다. 검사 문항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음악 교과서와 교과과정 안내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검사로 구성되는데, 각 검사는 3~4가지로 이루어진 부수검사로 나뉜다.

검사1 : 음악 기술에 관한 검사로 음고 구분, 음정 구분, 박자 구분의 부수 검사가 있다.

검사2 : 기본적인 음악개념에 관한 지식과 청각 기술에 관한 검사로 장·단조 구별, 조성음 인지, 시청각 구별의 부수검사가 있다.

검사 3 :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음고 인식에 관한 검사와 악보를 몰라도 가능한 조성 기억, 선율 인식의 부수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4 : 음악 양식, 시청각 구분, 화성 인식, 종지 인식의 부수 검사가 있다. 이 검사들은 대부분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된 음악을 여러 답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구성되어있다.²²⁾

콜웰(Colwell)의 실버 버데트 음악 능력 검사(Silver Burdett Music Competency Test, 1979)는 1~6학년울 대상으로 한 음악성취 검사이다. 각 학년마다 4개의 평가로 나뉘는데 가락, 리듬, 음색, 짜임, 형식, 조성 그리고 다이내믹 등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평가이다. 4개의 평가들은 다음과 같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있다.

평가1 : 음높이, 음정, 박자 구별

평가2 : 장조-단조, 으뜸음 감지, 듣고 악보로 확인하기

평가3 : 조성, 가락, 멜로디, 악기 인식

평가4 : 음악 스타일, 청각-음악적 구별, 화성과 종지 인식

이 검사는 Silver Burdett 이라는 교과서에 맞추어 그 교과서의 교육내용

22) H. F. Abeles 외 3인 공저. (1991). 방금주 역.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삼호출판사. p.175.

을 가지고 성취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 평가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계점을 갖는다.²³⁾

그 외에 왓킨스-파르넘 연주측정(Watkins-Farnum Performance Scale)과 인디애나-오레곤 음악 판별 검사(Indiana-Oregon Musical Discrimination Test)가 있는데, 전자는 1954년 왓킨스와 파르넘이 기악 음악 연주의 개별적 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검사이고, 후자는 헤브너(Kate Hevener)에 의해 1934년 개발된 음악 판별 오레곤 검사(Oregon Test Music Discrimination)를 기초로 하여 1967년 롱(Newell Long)이 개발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예술가의 작품과 심리학자 음악가의 작품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²⁴⁾

이상의 음악성취도 검사들은 주로 청각에 관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위의 음악성취도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평가기준은 연구도구에 자세하게 수록되어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음악적성 검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외국 음악적성 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우선 외국의 음악적성 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도 살펴보았다.

23) Colwell, R. *Silver Burdett music competency tests*, Morristown, N.J.: Silver Burdett. 1979.

24) H. F. Abeles 외 3인 공저. (1991). 전게서. p.176.

대부분 연구들이 음악적성과 음악환경, 그리고 음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현정은 그의 논문 “HSMAT와 MAP의 상관관계 분석”²⁵⁾에서 우리나라 음악 적성검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 음악적 요소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음악적성 검사, 즉 현경실 · 석문주 음악적성 검사(Hyun&Seog Musical Aptitude Test : 이하 HSMAT, 1997)와 고든(Gordon)의 음악적성 프로파일(The Musical Aptitude Profile : 이하 MAP, 1965)을 대구지역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14명에게 검사하였다.

HSMAT의 하위검사와 맞추어 MAP의 7개 하위검사 중 리듬감에서 박자, 음감에서 가락 검사만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 매킨토시 통계 프로그램인 스테뷰(Statview, V.40)를 사용하여 HSMAT의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난이도, MAP의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난이도를 분석하였고 HSMAT와 MAP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30문항의 HSMAT와 MAP의 상관계수는 리듬이 .10, 음정이 -.03이고 20문항의 HSMAT와 MAP의 상관계수는 리듬이 .08, 음정이 0으로 나타나 두 검사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결론 내었다. 이유는 MAP가 우리나라 음악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고려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임을 시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MAP의 결과 분석을 미국 학생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고든의 연구와 비교 분석했는데, 신뢰도와 문항 난이도에서 미국의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고려한 검사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5) 김현정. (1997). HSMAT와 MAP 상관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수영의 논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악환경과 음악적성간의 관계”²⁶⁾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악환경과 음악적성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음악능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함평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각각 두 곳씩 선정하여, 초등학교 1~2학년에게 고든(Gordon)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기초검사(PMMA :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79)를 실시하고, 어머니들에게 아동의 음악환경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는 이영숙과 구은경의 가정음악환경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수정·제작한 어머니용 질문지이다.

그 결과, 음악환경 총점과 음감간의 상관관계가 $r=.26$,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음악환경 총점과 리듬간에도 $r=.20$, $p<.01$ 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음악환경이 아동의 음악적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논문은 지역에 따라 음악적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어머니용 질문지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부모님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총수입에 관한 문항이 있었는데 이는 왜 필요했는지 논문어디에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웠다.

배성애의 논문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²⁷⁾는 연구 목적이 음악적성, 음악흥미, 지능이 음악성취도에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밝혀 음악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384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요인인

26) 유수영. (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악환경과 음악적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7) 배성애. (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개개인의 음악적성, 음악흥미, 지능과 음악성취를 알기위한 가창, 청음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음악교수 방법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음악적성검사로는 고든(Gordon)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고급검사(AMMA :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9)를 실시하고, 음악흥미는 5단계 평정척도형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내면적 행동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지능은 박도순(1998a)의 최신종합지능 검사로 측정하였고, 청음성취도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졸탄 코다이(Zoltan Kodaly)의 음악교수 방법에 근거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가창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슈베르트(F. P. Schubert)의 ‘음악에’(An die Musik)를 우리말로 노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음악적성과 음악흥미 및 지능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음악흥미 검사 도구의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인자분석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r=.190$, $p<.01$ 로 높지는 않으나 서로 상관있음을 보였고,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r=.461$, $p<.01$ 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지능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r=.029$, $p>.05$ 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했다. 음악적성과 음악흥미, 지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음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음악흥미로 음악흥미($p<.01$, $t=9.66$)가 음악적성($p<.01$, $t=2.43$)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지능은 회귀모형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음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적성과 지능보다는

음악흥미의 학습자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따른 음악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로 인해 음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악흥미, 음악적성, 지능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음악성취도 검사로 사용된 가창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점수내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다.

김희령은 “아동의 음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성 및 음악환경간의 상관관계 비교 연구”²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적성 검사와 환경조사 및 성취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과 성취 평가의 상관관계를 알고자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충남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80명이다.

음악적성 검사로는 고든(Gordon)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중급검사(IMMA :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2)를 실시하였고, 환경변인을 알기위한 설문지를 조사했으며, 음악성취를 알기 위해 연구자가 작곡한 다장조의 곡 <예뻐질꺼야>로 가창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와의 관계, (2) 아동의 음악환경 실태 조사, (3) 음악환경이 음악성취에 미치는 영향, (4) 음악적성과 환경변인 중 음악성취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 연구의 네 가지를 연구 문제로 하여 음악적성과 음악성취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earman의 상관계수를, 환경변인과 음악성취와의 관계를 알기위해 분산 분석(ANOVA)을 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음감과 리듬감이 우수한 학생은 음악성취도 좋아 유의도가 음정은 .003($r=.329$, $p<.05$), 리듬은 .000($r=.566$,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28) 김희령. (1998). 아동의 음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성 및 음악환경간의 상관관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불구하고 음악환경이 음악적성보다 음악성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환경을 풍부하게 갖추어 줌으로써 음악적 소질을 계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음악환경 설문지의 문항 하나마다 음악성취도와 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으로서 어느 음악적 환경이 음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 좋았으나 각 지역의 학생의 차이는 어떠하며 음악성취도검사의 평가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이성희는 “음악성적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와 음악성적에 미치는 음악환경에 대한 연구”²⁹⁾에서 아동의 음악 능력을 계발하고 개성을 고려한 음악 교육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고양시 H초등학교 3학년 427명에게 음악 성적과 음악적성의 관계, 음악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실험 연구하였다.

음악적성검사로 고든(Gordon)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중급검사(IMMA :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2)를 실시하였고, 음악성적은 음악 교과 전담 교사에 의해 실시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음악성적과 음악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검증, F검증, χ^2 검증(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음악성적과 음악적성에 대한 음악환경의 영향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음악성적이 높은 아동이 음악적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음악성적이 낮은 아동이 음악적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F검증을 한 결과 기대한 F값(3.00, $\alpha=0.05$)보다 크게 나와서(5.85) 음악성적에 따라서 음악적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양한 음악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음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29) 이성희. (2000). 음악성적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와 음악성적에 미치는 음악환경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음악환경 설문지에서 무엇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는지 각 문항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당연한 답을 요구하는 몇 개의 문항이 있어 설문지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음악성적은 중간고사에 실시된 수행평가의 성적인지 기말고사의 수행평가 성적인지, 음악적성검사는 언제 실시했는지 등에 대한 연구 절차부분이 생략된 듯 보인다.

임충기 · 박경자의 논문 “음악성적, 음악적성, 일반지능의 관계분석”³⁰⁾의 연구목적은 일반지능과 음악적성, 음악성적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자하는 것이다.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206명을 대상으로 SPSS를 이용하여 적률상관계수,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kaiser의 정규화 방식에 따른 직교회전방법(varimax rotation)으로 분석하였다.

음악적성검사로써 고든(Gordon)의 음악 오디에이션의 고급검사(AMMA :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89)를 사용하였고 일반지능은 박도순(1998)의 최신 종합 지능 검사를, 성적은 1998학년도 음악성적을 포함한 1·2학기 중간·기말고사 전체 성적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음악적성과 일반지능의 관계에서 리듬영역은 $F=3.1999$ ($p=0.043$, $\alpha=0.05$)이고, 음색영역은 $F=0.228$ ($p=0.796$)로 리듬영역만 지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성적과 음악적성과의 관계에서 리듬영역은 $F=7.434$ ($p=0.001$, $\alpha=0.05$), 음색영역은 $F=1.437$ ($p=0.240$)로 이 또한 리듬영역만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지능과 음악성적은 음악적성의 리듬영역과는 관련이 있지만,

30) 임충기 · 박경자. (1999). “음악성적, 음악적성, 일반지능의 관계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pp.25~48.

음색영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어 전반적으로 볼 때 음악적성은 음악성적 및 일반지능과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음악적성을 음악 성적만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학교교과 전체 성적과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보통 머리가 좋으면 음악적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통계분석도 매우 열심히 한 논문이었으나 이와 비슷한 선행연구들을 수록했으면 그와 비교도 되고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현경실은 “한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타당도 연구”³¹⁾에서 1996년부터 개발되어 온 현·석 음악적성 검사(Hyun & Seog Musical Aptitude Test, 이하 HSMAT)를 보완·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에 대한 음악적성검사를 개발하고, 그 음악적성검사의 공인타당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HSMAT는 1996년 8월부터 1차년도에 5차에 걸친 실험 검사를 개발·완료한 후 붙인 이름이고, 1997년 9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2차년도에 9차에 걸친 실험검사를 실시한 후부터는 ‘한국 음악적성 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 이하 KMAT)’³²⁾라 칭하게 되었다.

공인타당도를 위한 음악성취도 검사에는 대구의 고산 초등학교 5학년 126명과 달성초등학교 6학년 12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와 음악교사와의 합의하에 1998년 3월부터 7월까지 학교교과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수업내용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5학년은 22문항, 6학년은 18문항을 만들어 음

31) 현경실. (1998). “한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타당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7집,

3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를 실시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게까지 확대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판된 검사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상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KMAT와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난이도와 변별도, 표준점수, 공인타당도 등이 SPSS+에 의해 통계 처리되었다. 그 분석결과 KMAT와 음악성취도 검사의 상관계수는 5학년이 .55, 6학년이 .40으로 유의도 .01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에 현경실은 KMAT를 우리나라 학교에 널리 적용하여 사용하려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인타당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에 KMAT의 타당도 조사를 연구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서양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적성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음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경실은 “한국 음악적성 검사 예언타당도 연구”³³⁾에서 KMA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KMAT와 음악환경, 일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예언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음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는 2001년 4월~7월에 걸쳐 KMAT와 함께 전국 13개 초등학교 3~6학년 787명에게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악기를 배운 경험이 음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적성과의 상관도는 .19로 유의도 .01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구의 초등학교 5학년과 경북의 초등학교 6학년 총75명의 2001년 학년말 성적과 KMAT의 상관을 본 결과, 유의도 .05수준에서 중요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 학업 성적과 음악성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3) 현경실. (2002). “한국 음악적성 검사 예언 타당도 연구”. 음악과 민족 제25호.

예언타당도 연구에서 1차 연구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교육대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2000년 3월~8월에 실시되었고, 2차 연구는 대구의 초등학교 5~6학년 총 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연구에서 음악성취도 검사와 KMAT의 상관계수는 .42($p < .05$)로 유의있었고, 2차 연구에서 음악성취도와 KMAT의 상관계수는 .34로 .01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 현경실은 연구의 부족한 부분과 연구자가 생각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음악학습의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타당도의 실험연구를 하기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좋은 실험연구를 위해서는 교과서 그대로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이고 변화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음악학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음악성취도 검사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음악성은 9세 이전에 발달하므로 이 시기에 음악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음악성 검사의 개발이 중요하다. 다섯째, 음악을 전공하기위해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음악성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으로 인해 실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의 도움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경기도 고양시 M초등학교의 3학년 두개 반 83명, 4학년 두개 반 76명, 총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로는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개요

KMAT는 Korean Music Aptitude Test의 약자로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음악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서양음악과 국악의 요소를 포함한 음악적성 검사로서 현경실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구 끝에 개발하였으며 학년별 규준과 표준점수가 만들어졌다. 이 검사의 하위요소에는 리듬과 가락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된다.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목적

한국 학생들에게 알맞은 효율적인 음악수업을 실시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바람직한 음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음악적성 검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발된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³⁴⁾

- ①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한다.
- ② 학생의 음악적으로 우수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을 진단한다.
- ③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음악적성도 진단한다.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내용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단순 필기 검사가 아닌 듣기 검사로, 두 개의 리듬패턴 또는 가락패턴이 같은지 다른지를 답안지에 표시하는 검사이다. 답안지양식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은 물론 그룹으로 실시가능하며 약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악적성을 잴 수 있다는 것과 단순한 소리가 아닌 음악적인 소리를 사용하였고,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채점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IQ나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악보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필요 없는 음악적성 검사이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하위검사는 리듬 검사와 가락 검사인데,

34)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학지사. p.15.

이는 여러 선행연구의 조사와 실험 끝에 리듬과 가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이들 각 검사는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서양음악과 국악의 비율이 약 2:1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를 위해 작곡된 짧은 리듬, 가락패턴을 앙코르(Encore)로 사보하고, 시퀀싱 프로그램인 케이크워크(Cakewalk)로 전환하여 피아노 음색으로 녹음하였다. 리듬 검사의 예비막은 우드블럭 음색으로 녹음하였다.

(4)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채점 및 해석

리듬, 가락, 종합점수의 세 영역을 원점수, 학년별 기준, 표준점수로 구분하여 학생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를 수치화하여 보여준다.

학년별 기준이란 각 개인의 점수를 전체 학생들 간의 백분율로 나타낸 백분율점수이다. 이 점수는 전체 응시자 중 해당 학생의 원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은 학생이 몇 %인지를 나타내주는 점수이다. 따라서 개인의 점수를 알면 같은 학년 안에서의 위치를 백분율로 알 수 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내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수 척도체제이다. KMAT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점수만 가지고도 표준점수를 보면 그 점수의 전체적인 점수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리듬 검사가 가락 검사보다 점수가 높았다면 가락을 좀 더 강조하고 반복하여 가르쳐야한다고 해석한다. 다음 <표 1>과 <표 2>은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 점수의 종류와 표준점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³⁵⁾

35) 현경실. (2004). 전계서. p.55, p.58.

<표 1> KMAT 점수의 종류

하위검사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율점수
리듬검사	리듬 원점수	리듬 T 점수	리듬 백분율 점수
가락검사	가락 원점수	가락 T 점수	가락 백분율 점수
종합	종합 원점수	종합 T 점수	종합 백분율 점수

<표 2> 표준점수의 구성

T 점수	수준
70점 이상	아주 우수함
60 ~ 69점	우수함
40 ~ 59점	양호함
30 ~ 39점	부족함
30점 미만	시험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함

(5)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신뢰도와 타당도

2001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전국 초·중학교 35개교 6,194명에게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를 한 결과, 전체 신뢰도가 리듬은 .86, 가락은 .79로 적성검사로는 높은 편이다.

문항난이도는 리듬과 가락이 각각 초등학교에서 73%, 76%이고, 중학교에서는 83%, 81%로 전체 문항난이도는 리듬이 75%, 가락이 77%이다. 전체 문항난이도만을 보면 학생들이 리듬 문항보다 가락 문항을 좀 더 쉽게 느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음악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19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음악적성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없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2) 음악성취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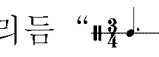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가창학습에 대한 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 개발과정,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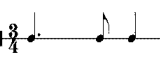
(1) 평가도구 개발과정

평가기준의 세 영역은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이다. 리듬과 가락은 음악의 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기준에 넣었고, 가사를 이해하고 각 프레이즈를 이해했는지, 음악의 빠르기가 주는 성격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자 음악적 표현을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각각의 하위 요소는 학년의 제재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음악학습에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객관적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다섯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다음은 최종적인 평가기준이 나오기 전의 기준들이다.

가. 3학년 제재곡 ‘소풍’의 평가기준




처음 만든 평가기준은 <표 3>처럼 리듬영역의 하위요소에 ①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와 쉼표를 정확하게 부르는가, ② 3/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르는가의 두 가지를 두었고, 가락영역의 하위요소는 ① 도약, 순차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이 정확한가, ②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이해하고 부르는가의 두 가지를, 음악적 표현영역의 하위요소는 ① 빠르기가 일정한가, ② 3/4박자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 부르는가, ③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으로 부르는가의 세 가지를 포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기에는 채점자의 주관이 많이 삽입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더욱 자세하게 다음의 두번째 기준을 만들었다.

- ① 리듬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 ⓐ 빠르기가 일정한가.
 - ⓑ 3/4박자의 강약을 지켜 노래하는가.
 - ⓒ 2, 6, 14마디의 “” 리듬을 지켜 부르는가.
 - ⓓ 4, 8, 16마디의 쉼표를 제대로 지켜 부르는가.
- ② 가락의 평가기준은 아래 두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 ⓐ 둘째단의 가락과 같은 가락, 다른 가락을 구별하여 부르는가.
 - ⓑ 음정의 간격을 유지하며 부르는가.
- ③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아래 세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 ⓐ 악곡의 빠르기인 ‘보통빠르기’로 부르는가.
 - ⓑ 숨표와 프레이즈를 지키는가.
 - ⓒ 가사전달은 정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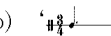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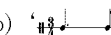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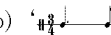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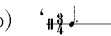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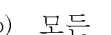
위 요소들은 각각이 1~5점에 모두 삽입되도록 아주 상세히 적었다. 세 번째 만든 기준은 두 번째와 같으나 각 요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1~5점에 포함되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평가기준들은 너무 상세하여 채점자가 이 기준들을 모두 인지하고 채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아래 <표 4> 3학년 ‘소풍’의 네 번째 평가기준과 같이 작성하였다. 또한 이것도 평가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표 5> 3학년 ‘소풍’의 다섯 번째 평가기준과 같이 각 영역별로 4개의 하위요소를 만들어 모두 정확히 하면 5점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번째로 만든 기준에는 최종적인 기준의 가락영역에서 ‘4도 이상 도약 음정이 정확한가’대신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한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4도 이상 도약 음정은 3도 이상 도약 음정 부분에 모두 포함하였으나, 제재곡에 도약하는 부분이 많아서 3도와 4도를 구분하고 대신 이 제재곡에서는 순차진행보다 도약진행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여 순차진행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표 3> 3학년 ‘소풍’의 첫번째 평가기준

평가 요소	평가관점 및 점수				
	5	4	3	2	1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와 쉼표를 정확하게 지켜 부른다. · 3/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를 부정확하게 하고, 쉼표를 정확하게 지켜 부른다. · 3/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와 쉼표를 부정확하게 부른다. · 3/4박자의 강약을 살리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과 쉼표, 3/4박자의 강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제재곡에 대한 이해 없이 부른다.
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음정(절대음정과 상대음정 모두 포함)으로 부른다. · 도약진행, 순차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이 정확하다. ·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이해하여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하는 가락의 음정이 부정확하나 순차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은 정확하게 부른다. ·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이해하여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하는 가락의 음정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순차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은 그다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해하여 부른다. ·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이해하여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하는 가락, 순차진행하는 가락의 음정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부정확하다. ·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제재곡에 대한 이해 없이 부른다.
음악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빠르기로 부른다. · 3/4박 곡의 분위기를 살려 부른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가 다소 일정하지 않게 부른다. · 3/4박 곡의 분위기를 살려 부른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게 부른다. · 3/4박 곡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부른다. · 자세와 호흡이 바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에 대한 이해는 했으나 표현이 음악적이지 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부른다.

<표 4> 3학년 ‘소풍’의 네번째 평가기준

평가 요소			
점수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a) 3/4박자의 강약을 지키며 일정박에 맞게 부른다. (b) ‘  ’의 리듬과 쉼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노래한다.	음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a) ‘보통 빠르기’로 노래한다. (b) 숨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지킨다 (c)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른다. (d)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하다.
4	(a) 1~2군데를 제외하고는 3/4박자의 강약을 지켜 부른다. (b) ‘  ’의 리듬과 쉼표가 1~2군데 정확하지 않다.	2~3군데를 제외하고는 음정이 정확하다.	(a) ‘보통 빠르기’로 노래한다. (b) 숨표와 프레이즈를 1~2군데 정도 지키지 못한다. (c) 악곡의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른다. (d)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명확하다.
3	(a) 3/4박자의 강약을 3~4군데 제외하고 지킨다. (b) ‘  ’의 리듬과 쉼표를 3~4군데 제외하고 지킨다.	4~5군데를 제외하고는 음정이 정확하다.	(a) 대체적으로 ‘보통 빠르기’로 노래한다. (b) 숨표와 프레이즈를 3~4군데 정도 지키지 못한다. (c) 악곡의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d)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분명하지 않다.
2	(a) 3/4박자의 강약을 5~6군데 정도 지키지 않는다. (b) ‘  ’의 리듬과 쉼표를 5~6군데 정도 지키지 않는다.	6~7군데 정도의 음정이 불안정하다.	(a)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지 못한다. (b) 숨표와 프레이즈를 5~6군데 정도 지키지 못한다. (c) 악곡의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d)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분명하지 않다.
1	(a) 3/4박자의 강약을 전혀 지키지 못한다. (b) 모든 ‘  ’의 리듬과 쉼표를 무시한다.	악곡 전체적으로 음정이 불안하다.	(a) ‘조금 빠르게’를 종잡을 수 없다. (b) 숨표, 프레이즈를 지키지 않는다. (c)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전달이 불분명하다. (d) 악곡의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표 5> 3학년 ‘소풍’의 다섯번째 평가기준

점수	평가 요소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① 빠르기가 일정하다. ② 3/4박자의 강약을 지켜 노래한다. ③ ‘  ’ 리듬을 정확히 지킨다. ④ 쉼표를 정확히 지킨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③ 3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④ 순차로 진행되는 음정이 정확하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① 악곡의 빠르기인 ‘보통빠르기’로 부른다. ② 숨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지킨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하다. ④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른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4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나. 4학년 제재곡 ‘종달새의 하루’


첫 번째로 만든 4학년의 제재곡 ‘종달새의 하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 의하여 <표 6> 4학년 ‘종달새의 하루’ 첫번째 평가기준에 정리하였다.

- ③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아래 세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 ⓐ ‘조금 빠르게’로 부르는가.
 - ⓑ 숨표와 프레이즈를 지키는가.
 - ⓒ 가사전달은 정확한가.

위 요소들은 각각이 1~5점에 모두 포함되도록 아주 상세히 적었다. 세 번째 만든 기준도 두 번째와 같으나 각 요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1~5점에 포함되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평가기준들은 너무 상세하여 채점자가 이 기준들을 모두 인지하고 채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아래 <표 7> 4학년 ‘종달새의 하루’ 네 번째 평가기준과 같이 작성하였다. 또한 이것도 평가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표 8> 4학년 ‘종달새의 하루’ 다섯 번째 평가기준과 같이 각 영역별로 4개의 하위요소를 만들어 모두 정확히 하면 5점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 번째로 만든 기준에는 최종적인 기준의 가락영역에서 ‘4도 이상 도약 음정이 정확한가’ 대신 ‘머무는 음정이 정확한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순차 진행은 4학년이면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보아 제외하였고, 4도 이상 도약 음정은 3도 이상 도약 음정 부분에 모두 포함하였으나, 제재곡에 도약하는 부분이 많아서 3도와 4도를 구분하고 대신 머무는 음정을 제외하였다. 머무는 음정도 4학년이면 제대로 한다고 결론지은 결과이다.

<표 6> 4학년 ‘중달새의 하루’의 첫번째 평가기준

평가 요소	평가관점 및 점수				
	5	4	3	2	1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이 불안정하나 쉼표는 정확하게 지켜 부른다. · 4/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이 불안정하나 쉼표는 정확하게 지켜 부른다. · 4/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이 불안정하고 쉼표는 정확하게 지켜 부른다. · 4/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이 불안정하고 쉼표도 부정확하게 부른다. · 4/4박자의 강약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제재곡에 대한 이해없이 부른다.
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음정으로 부른다. · 올라가는 가락, 내려가는 가락, 머무는 가락의 음정이 정확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하는 가락의 음정이 부정확하나 순차, 머무는 가락의 음정은 정확하게 부른다. · 가락의 형태를 이해하여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의 음정은 부정확하나 가락의 형태를 이해하여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락의 음정이 부정확하게 부른다. · 가락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부른다.
음악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빠르기로 부른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가 다소 일정하지 않게 부른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게 부른다. · 자세와 호흡이 바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에 대한 이해는 했으나 표현이 음악적이지 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제재곡에 대한 이해없이 부른다.

<표 7> 4학년 '중달새의 하루'의 네번째 평가기준

평가 요소			
점수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a) 4/4박자의 일정박과 빠르기가 일정하다. (b) 쉼표와 짧은 음표(♪ ♪), 긴 음표(♩)의 길이를 대체적으로 잘 지킨다.	음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a) '조금 빠르게'로 노래한다. (b) 쉼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지킨다. (c)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하다 (d) 악곡이 가지는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른다.
4	(a) 4/4박자의 일정박과 빠르기가 1~2군데를 제외하고는 일정하다. (b) 쉼표, 짧은 음표, 긴음표를 1~2군데 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2~3군데를 제외하고는 음정이 정확하다.	(a) 대체적으로 '조금 빠르게'로 노래한다 (b) 쉼표와 프레이즈를 1~2군데 제외하고 지킨다. (c)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명확하다. (d)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른다.
3	(a) 4/4박자의 일정박과 빠르기가 3~4군데를 제외하고는 일정하다. (b) 쉼표, 짧은 음표, 긴음표를 3~4군데 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4~5군데를 제외하고는 음정이 정확하다.	(a) 대체적으로 '조금 빠르게'로 노래한다. (b) 쉼표와 프레이즈를 3~4군데 제외하고 지킨다. (c)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분명하지 않다 (d) 악곡의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2	(a) 4/4박자의 일정박과 빠르기가 5~6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정하다. (b) 쉼표, 짧은 음표, 긴음표를 5~6군데 정도 지키지 못한다.	6~7군데 정도의 음정이 불안정하다.	(a) '조금 빠르게'로 노래하지 못한다. (b) 쉼표와 프레이즈를 5~6군데 지키지 못한다. (c)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분명하지 않다. (d) 악곡의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1	(a) 4/4박자의 일정박과 빠르기의 감을 전혀 잡지 못한다. (b) 모든 쉼표, 음표를 무시하고 부른다.	악곡 전체에서 음정이 불안정하다.	(a) '조금 빠르게'를 종잡을 수 없다. (b) 쉼표, 프레이즈를 지키지 않는다. (c) 발음이 부정확하여 가사전달이 불분명하다. (d) 악곡의 느낌을 살려 부르지 못한다.

<표 8> 4학년 ‘중달새의 하루’ 다섯번째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① 빠르기가 일정하다. ② 쉼표를 정확히 지킨다. ③ 짧은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킨다. ④ 긴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킨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③ 3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특히 14마디 주의) ④ 머무는 음정이 정확하다. (특히, 9마디주의)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① ‘조금빠르게’로 부른다. ② 쉼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히 지킨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확실하다. ④ 악곡이 가지는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른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4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최종적인 평가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

첫째, 평가기준은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5단계로 나누었다. 한 단계에 1점씩 배분하여 세 영역에서 모두 만점이 나오면 총 15점의 점수를 얻는다.

둘째, 평가기준의 세 영역은 리듬 · 가락 · 음악적 표현이다. 리듬과 가락은 음악의 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기준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이고, 학생이 가사를 이해하고 각 프레이즈를 이해했는지, 음악의 빠르기가 주는 성격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자 음악적 표현을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리듬 · 가락 · 음악적 표현은 각각 네 가지씩의 하위요소를 포함하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모두 정확히 하면 5점, 그 중 한 가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4점, 두 가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3점, 세 가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2점, 모두 정확하지 않으면 1점을 준다.

넷째, 각각의 하위 요소는 학년의 제재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3학년의 제재곡인 ‘소풍’에 대한 음악성취도 평가기준

제재곡인 ‘소풍’은 3/4박자의 강약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곡이고, 중앙도에서부터 한 옥타브위의 음역 내에서 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초등학교 3학년생이 부르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도약음정이 있어 곡의 재미를 더했으며 3박자 왈츠의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르기에 알맞은 곡이다.

가. 리듬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빠르기가 일정한가.

이는 제재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템포로 부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3/4박자의 강약을 지켜 노래하는가.

이는 3박자 셈여림인 ‘강약약’을 이해하며 부르는가를 평가한다.

③ 리듬을 지켜 부르는가.

이 리듬은 ‘소풍’에서 특징적인 리듬이므로 이러한 부점 리듬을 정확히 하는지 평가한다.

④ 쉼표를 지켜 부르는가.

쉼표도 음악이므로 이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곡에서 쉼표는

프레이즈를 나누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음 프레이즈를 시작하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쉬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가락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한가.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한가.

시작음과 마지막음의 음정이 맞았다면, 악곡의 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으로 중요하다.

③ 3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한가.

3도 도약한 음정의 2/3이상을 정확히 노래했다면 3도 도약은 모두 정확히 했다고 평가한다. 2/3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④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한가.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의 2/3이상이 정확하면 4도 이상 도약은 모두 정확히 했다고 평가한다. 이 제재곡에서는 순차진행보다 도약진행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여 순차진행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다.

다.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악곡의 빠르기인 ‘보통빠르기’로 부르는가.

‘소풍’의 빠르기는 ‘보통빠르기’이다. 이는 왈츠의 느낌을 살려 부르기에 적당한 빠르기이다.

② 숨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지키는가.

하나의 프레이즈는 4마디로 이를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평가한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한가.

자세가 바르고 자연스런 발성으로 노래를 하면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확실하다. 단순히 정확한 발음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발성이 어떠한지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르는가.

제목과 가사에서 오는 소풍을 가는 즐거운 느낌과 더불어 3박자 왈츠의 느낌을 잘 살려 노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표 9> 3학년 ‘소풍’의 최종적인 평가기준

점수	평가 요소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① 빠르기가 일정하다. ② 3/4박자의 강약을 지켜 노래한다. ③ ‘♯♩ ♪ ♯♩ ♪’ 리듬을 정확히 지킨다. ④ 쉼표를 정확히 지킨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③ 3도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④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① 악곡의 빠르기인 ‘보통빠르기’로 부른다. ② 숨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지킨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확실하다. ④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 부른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다.
4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3) 4학년의 제재곡인 ‘종달새의 하루’에 대한 음악성취도 평가기준

‘종달새의 하루’에서는 제재곡의 빠르기인 ‘조금빠르게’와 쉽표가 있는 리듬이 곡의 경쾌함을 한층 더하고 있어 그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곡이다. 음역도 중앙 도부터 한 옥타브위의 음역 내에서 가락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 부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내려오는 가락, 올라가는 가락, 머무는 가락 등 여러 종류의 가락이 포함되어 있어 곡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가. 리듬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빠르기가 일정한가.

이는 제재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템포로 부르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3마디처럼 ♩가 연속되는 부분에서 빠르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특히 주의한다. ♩가 연속되는 부분에서는 일정박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박자의 셈여림 ‘강약중강약’을 표현하기 힘든 곡이므로 이것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하였다.

② 쉽표를 정확히 지키는가.

쉽표에서도 음악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노래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곡에서 쉽표는 더욱 경쾌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③ 짧은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키는가.

특히, 제11~13마디의 ‘♪ ♪’의 길이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래 음표 길이보다 조금 짧게 유지한다. 즉, 원래 음가보다 약간 짧게 끊는 것은 괜찮으나, 음가보다 길게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았다.

④ 긴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키는가.

숨이 모자라면 음을 길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여 노래하는지 평가한다. 그러나 제16마디의 ↓ 경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리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보다 더 짧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로 한다.

나. 가락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한가.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한가.

시작음과 마지막음의 음정이 맞았다면, 악곡의 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으로 중요하다.

③ 3도 도약한 음정이 정확한가.

3도 도약한 음정의 2/3이상을 정확히 노래하면 3도 도약은 모두 정확히 했다고 평가한다. 2/3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④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한가.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의 2/3이상이 정확하면 4도 이상 도약은 모두 정확히 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순차진행과 머무는 진행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모두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다.

다. 음악적 표현의 평가기준은 아래 네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한다.

① ‘조금빠르게’로 부르는가.

이 곡에 제시된 빠르기가 ‘조금빠르게’이다. 이 빠르기말에서 곡의 성격이 즐겁고 경쾌함을 알 수 있다.

② 숨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히 지키는가.

프레이즈가 두 마디 단위로 진행한다. 이를 이해하고 노래하는지 평가한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한가.

자세가 바르고 자연스런 발성으로 노래를 하면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 전달이 확실하다. 단순히 정확한 발음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발성이 어떠한지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악곡이 가지는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르는가.

곡의 빠르기말과 가사의 내용, 빠른 음표들로 구성된 리듬, 쉼표가 있는 리듬 등으로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0> 4학년 ‘중달새의 하루’ 최종적인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5	① 빠르기가 일정하다. ② 쉼표를 정확히 지킨다. ③ 짧은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킨다. ④ 긴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지킨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① 시작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② 마지막음의 음정이 정확하다. ③ 3도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④ 4도 이상 도약한 음정이 정확하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① ‘조금빠르게’로 부른다. ② 쉼표와 프레이즈를 정확히 지킨다. ③ 발음이 정확하여 가사전달이 확실하다. ④ 악곡이 가지는 경쾌한 느낌을 살려 부른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킨다.
4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
3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2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 중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한다.
1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지키지 못한다.

3. 연구 절차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는 한국학생의 음악성을 측정하여 학생들 각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바람직한 음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양음악과 국악의 요소를 포함한 음악적성검사이다. 본 연구자는 음악적성 검사인 현경실의 KMAT점수와 학생들의 음악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KMAT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 검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경기도 고양시 M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과 미리 연락하여 3, 4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검사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았다.

둘째, 4학년의 검사일시는 2004년 7월 16일, 1~2교시이고, 3학년은 같은 날 3~4교시이다. KMAT의 검사시간만 약 20분으로 짧은 설명과 더불어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답안지를 회수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음악성취도 검사 또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음악적성 검사와 음악성취도 검사를 한 차시에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3학년의 제재곡인 ‘소풍’과 4학년의 제재곡인 ‘종달새의 하루’는 연구자와 담임선생님들과의 상의로 정하였다.

넷째, 검사는 본 연구자와 연구자가 의뢰한 또 한명의 검사자가 한반씩 맡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CD와 CD 플레이어,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기는 연구자와 연구자가 의뢰한 검사자가 준비하였다. 이는 학교에 비치되어있는 CD 플레이어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여섯째, 담임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 문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는데 그 내용은 <부록2>에 실었고, 각 학년의 제재곡의 악보는 피날레로 그려서 <부록3>에 수록하였다.

일곱째, 1교시에는 KMAT검사를 실시하였고, 2교시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5분간 제재곡을 연습한 후, 한 명씩 교단 앞으로 나와 노래 부르는 것을 테이프에 녹음하였다. 녹음 전 제재곡의 첫 음을 오르간으로 쳐준 후 학생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고, 모두 1절만 부르도록 했다. 3학년 또한 4학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3~4교시에 실시하였다.

여덟째, 본 연구자가 작성한 제재곡의 평가 기준에 의해 세 명의 평가자가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채점했으며 점수는 엑셀로 입력하고,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아홉째, KMAT의 채점은 엑셀로 작업하고 점수를 입력하며,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타당도와 변별도를 알아보았다.

열째, KMAT의 공인 타당도를 알기위해 음악성취도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4. 연구 분석 방법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의 점수는 30개의 리듬 문항이 1점씩 총 30점, 가락 문항이 1점씩 총 30점으로 전체 60점이 만점이고, 음악성취도 검사의 점수는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에 대한 점수가 각 5점씩 총 15점이 만점이다.

KMAT의 점수는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를 냈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구했다.

음악성취도 점수는 세 명의 평가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매긴 점수에 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고, 세 명의 평가자가 채점하므로 평가자간의 채점이 얼마나 신뢰롭고 일관성이 있는지 알기위해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 계수로 구했다.

KMAT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음악적성 검사와 음악성취도의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로 결과를 얻었다.

이 모든 연구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분석결과

1)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3, 4학년 전체의 평균으로 볼 때, 리듬검사의 점수(20.58)가 가락검사의 점수(22.92)보다 낮게 나와 학생들이 리듬문항을 가락문항보다 어려워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의뢰한 학교의 학생들의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 점수와 현경실이 학년별 규준을 만들기 위해 실험한 학생들의 KMAT의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서로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표 11>은 M초등학교와 현경실의 실험점수³⁶⁾를 비교한 것이다.

M초등학교 3학년의 리듬 평균은 19.71, KMAT 3학년의 리듬 평균은 19.67로 비슷했다. 또한 M초등학교 3학년의 가락 평균이 22.08, 4학년의 리듬 평균이 21.53, 가락평균이 23.83이고, KMAT 3학년의 가락 평균이 20.88, 4학년 리듬 평균이 20.18, 가락 평균이 22.47로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36) 현경실, 「한국 음악적성 검사」(서울:학지사, 2004), p.99.

<표 11> KMAT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평균			표준편차		
		리듬	가락	합계	리듬	가락	합계
M초등학교	3학년	19.71	22.08	41.83	6.04	4.69	8.96
	4학년	21.53	23.83	45.38	5.62	4.15	8.32
	전체	20.58	22.92	43.50	5.90	4.51	8.77
KMAT	3학년	19.67	20.88	40.54	5.52	4.89	8.53
	4학년	20.18	22.47	42.66	5.72	4.39	8.12

2)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신뢰도

신뢰도란 검사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신뢰도 값은 -1~1사이에서 분포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나타냈다.

M초등학교 3학년의 KMAT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5이고,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79이다. M초등학교 4학년의 KMAT 리듬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4이고, 가락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7이다. 3, 4학년 전체 159명의 KMAT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리듬 검사가 .85, 가락 검사가 .79이다.

현경실의 KMAT 신뢰도³⁷⁾는 3학년의 리듬 검사가 .81, 가락 검사가 .79이며, 4학년의 리듬 검사가 .83 가락 검사가 .79였다. M초등학교의 신뢰도와 현경실의 KMAT 신뢰도가 비슷하게 나왔으나, 현경실의 KMAT 신뢰도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온 값이고, M초등학교의 신뢰도는 159

37) 현경실(2004), 전제서, p.101

명만을 대상으로 한 값이므로 이 경우는 M초등학교의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표 12>는 M초등학교와 현경실의 실험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2> KMAT의 신뢰도 비교

		리듬	가락
M초등학교	3학년	.85	.79
	4학년	.84	.77
	전체	.85	.79
KMAT	3학년	.81	.79
	4학년	.83	.77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

(1) KMAT의 문항난이도

문항난이도는 각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수로서 지수가 클수록 난이도는 쉬운 문항이다. 3, 4학년 전체의 난이도 분포를 보면 리듬 검사에서 난이도가 90%이상의 문항은 하나도 없었고, 80~89%의 문항은 4개, 70~79%는 9개 문항, 60~69%는 14개 문항, 60% 미만은 3개 문항이었다. 가락 검사에서는 난이도가 90%이상의 문항이 1개, 80~89%는 14개 문항, 70~79%는 7개 문항, 60~69%는 3개 문항, 60% 미만의 문항은 5개였다. <표 13>는 학년별 문항난이도의 분포를 문항수로 나타낸 것이다.

문항난이도의 평균은 <표 14>에서와 같이 리듬 검사가 68.9%, 가락

검사가 77.3%로 M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락 검사가 리듬 검사보다 약간 쉬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듬 검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은 16번이고, 가락 검사에서는 1번과 20번으로 이는 현경실의 KMAT 문항난이도³⁸⁾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3> 학년별 문항난이도 분포

	3학년		4학년		전체	
	리듬	가락	리듬	가락	리듬	가락
90%이상	·	1	·	7	·	1
80~89%	2	11	6	12	4	14
70~79%	9	9	10	2	9	7
60~69%	12	3	11	7	14	3
60%미만	7	6	3	2	5	5

38) 현경실(2004), 전제서, p.103

<표 14> KMAT의 문항난이도

KMAT문항	3학년		4학년		전체	
	리듬	가락	리듬	가락	리듬	가락
1	71.1	31.3	77.6	59.1	74.2	44.7
2	74.7	67.5	77.6	69.7	76.1	68.6
3	59.0	80.8	61.8	94.7	60.4	87.4
4	75.9	89.2	85.5	90.8	80.5	89.9
5	63.9	88.0	65.8	86.8	64.8	87.4
6	47.0	85.5	56.6	88.2	51.6	86.8
7	60.0	73.5	60.5	88.2	60.4	80.5
8	61.5	92.8	72.4	81.6	66.7	87.4
9	60.2	78.3	64.5	68.4	62.3	73.6
10	77.1	71.1	64.5	84.2	71.1	77.4
11	68.7	77.1	69.7	92.1	69.2	84.3
12	83.2	54.2	80.3	68.4	81.8	61.0
13	63.9	69.9	67.1	84.2	65.4	76.7
14	61.5	88.0	77.6	90.8	69.2	89.3
15	71.1	68.7	85.5	63.2	78.0	66.0
16	38.6	55.4	54.0	64.5	45.9	59.8
17	73.5	77.1	67.1	79.0	70.4	78.0
18	71.1	50.6	80.3	65.8	75.5	57.9
19	59.0	88.0	59.2	88.5	59.1	88.1
20	65.1	37.4	69.7	34.2	67.3	35.9
21	59.0	73.5	75.0	80.3	66.7	76.7
22	59.0	83.1	68.4	90.8	63.5	86.8
23	77.1	51.8	86.8	67.1	81.8	59.1
24	81.9	73.5	71.1	71.1	76.7	72.3
25	67.5	85.5	75.0	88.2	71.1	86.8
26	66.3	86.8	75.0	86.8	70.4	86.8
27	56.6	72.3	67.1	86.8	61.6	79.3
28	61.5	79.5	75.0	85.5	67.9	82.4
29	61.5	85.5	75.0	90.8	67.9	88.1
30	74.7	92.8	86.8	93.4	80.5	93.1
평균	66.0	74.4	71.8	80.5	68.9	77.2

(2) 문항변별도

문항변별도는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변별력이 높은 문항에서는 높은 능력의 피험자가 정답을 맞추고, 낮은 능력의 피험자는 오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말하는 변별도 지수 .20보다 낮은 문항은 3, 4학년 전체의 변별도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표 15>과 같이 리듬 검사에서 1문항, 가락 검사에서 4문항으로, 리듬 검사의 문항변별도 범위는 .18~.61로 나타났고, 가락 검사의 문항변별도는 .15~.44로 나타났다. 현경실의 KMAT 문항변별도³⁹⁾ 또한 리듬 검사가 .32~.64이고, 가락 검사가 .15~.56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했다.

39) 현경실(2004), 전제서, p104

<표 15> KMAT의 문항변별도

KMAT문항	3학년		4학년		전체	
	리듬	가락	리듬	가락	리듬	가락
1	.45	.31	.45	.32	.46	.34
2	.31	.29	.29	.38	.30	.33
3	.30	.36	.58	.15	.42	.31
4	.15	.36	.51	.24	.31	.31
5	.17	.33	.55	.39	.34	.34
6	.38	.01	.31	.33	.36	.15
7	.53	.44	.23	.38	.39	.44
8	.66	.32	.52	.53	.61	.36
9	.42	.16	.28	.38	.36	.23
10	.15	.41	.34	.44	.21	.44
11	.51	.14	.32	.25	.42	.20
12	.41	.36	.33	.26	.36	.34
13	.48	.40	.35	.20	.42	.34
14	.55	.11	.46	.40	.53	.23
15	.43	.25	.48	.37	.46	.29
16	.08	.21	.32	.31	.21	.27
17	.43	.38	.24	.03	.32	.22
18	.26	.35	.32	.26	.30	.33
19	.26	.11	.28	.23	.26	.16
20	.56	.25	.31	.08	.45	.17
21	.43	.43	.27	.28	.38	.37
22	.26	.39	.37	.22	.32	.34
23	.29	.35	.35	.34	.33	.36
24	.25	.24	.32	.24	.25	.23
25	.35	.30	.27	.29	.32	.30
26	.12	.18	.22	.17	.18	.17
27	.41	.29	.23	.20	.34	.28
28	.41	.51	.43	.08	.43	.34
29	.45	.40	.55	.36	.50	.39
30	.50	.31	.23	.39	.40	.34

2. 음악성취도 검사의 분석결과

1)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KMAT의 리듬 검사의 평균점수가 20.58이고, 가락 검사의 평균점수가 22.92로 가락 검사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온 것과는 달리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에서는 리듬의 평균점수가 4.17, 가락의 평균점수가 3.51, 음악적 표현의 평균점수가 3.85로 리듬의 평균점수가 가락의 평균점수와 음악적 표현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표 16>은 채점자 세 명의 학년별 음악성취도 하위요소의 평균과 음악성취도 점수의 합계에 대한 평균이다.

<표 16>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3학년	4학년	전체
리듬	평균	4.13	4.23	4.17
	표준편차	.80	.80	.80
가락	평균	3.52	3.50	3.51
	표준편차	1.08	1.04	1.06
음악적표현	평균	3.75	3.97	3.85
	표준편차	.94	.85	.91
합계	평균	11.07	12.16	11.53
	표준편차	2.60	2.08	2.24

2) 음악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두 명이상의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가 일치되는 정도를 채점자간의 신뢰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는 3명의 채점자가 채점했으므로 채점자간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로 알아보았다.

음악성취도의 채점자 신뢰도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3학년과 4학년이 모두 .91이다. 특히 3학년의 가락점수에 대한 채점자 신뢰도가 .90으로 채점자들이 가락에 대한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 대부분 같이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3학년 리듬점수의 채점자 신뢰도가 .81로 가락점수보다는 낮아 채점자들이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채점자 신뢰도를 보면, 리듬이 .83, 가락이 .85, 음악적 표현이 .85로 그다지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신뢰도이면 채점자들이 음악성취가 높은 학생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낮은 음악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한마디로 일관성있게 채점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음악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

	리듬	가락	음악적 표현	합계
3학년	.81	.90	.84	.91
4학년	.83	.85	.85	.91
전체	.82	.88	.85	.91

3.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의 공인타당도

타당도란 검사 또는 시험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충실히 재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와의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로 KMAT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상관계수는 -1~1사이의 값을 취하며 0이면 상관이 전혀 없고,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크다고 해석한다.

1) 3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3학년 83명에 대한 공인 타당도는 <표 18>과 같다.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와 KMAT의 하위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리듬은 .359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고, 가락 또한 .412로 유의도 $p < .01$ 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나온 상관계수를 제공하고 100을 곱하여 음악성취도 검사와 KMAT에서 리듬영역의 약 13%와 가락영역의 약 17%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과 가락 간의 상관도는 .389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음을 보였고,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 중 리듬과 가락의 상관도는 .725($p < .01$)였다. 따라서 KMAT의 하위요소들 간에는 약 15%가 서로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고, 음악성취도의 리듬/가락 사이에는 약 52%가 공통되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 KMAT보다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들 간에 공통점이 많다.

<표 18> 3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가창 리듬	가창 가락	가창 음악적표현
KMAT 리듬	.359**	.284**	.244*
KMAT 가락	.221*	.412**	.366*

2) 4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4학년 76명에 대한 KMAT의 공인타당도는 <표 19>과 같이 리듬이 .228, 가락이 .242로 높지는 않으나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서로 상관있음을 보였다. 이를 %로 나타내면 리듬이 약 5%, 가락이 약 6%만이 KMAT과 음악성취도 검사에서 상관이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이것은 3학년의 KMAT 타당도보다 낮은 값이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가락 간의 상관계수는 .435($p < .01$)이고,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 중 리듬/가락의 상관계수는 .709($p < .01$)로 각 하위요소 간에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표 19> 4학년 KMAT의 공인타당도

	가창 리듬	가창 가락	가창 음악적표현
KMAT 리듬	.228*	.116	.130
KMAT 가락	.142	.242*	.203

3) 3, 4학년 전체의 KMAT 공인 타당도

3, 4학년 전체의 KMAT 공인타당도는 .335($p<.01$)로 KMAT과 음악성취도 검사간의 약 11%가 상관이 있었다. <표 20>과 같이 KMAT와 음악성취도의 리듬 상관관계는 .305, 가락의 상관관계가 .332로 유의도 $p<.01$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현경실의 KMAT 공인타당도 연구⁴⁰⁾에서 5, 6학년의 음악적성검사와 음악성취도의 상관관계가 .55($p<.01$), .40($p<.01$)으로 나온 것에 비하면 본 연구자의 값은 낮은 것이다.

KMAT의 하위요소인 리듬/가락 간의 상관계수는 .426($p<.01$)이고, 음악성취도 검사의 하위요소 중 리듬/가락의 상관계수는 .715($p<.01$)로 각 하위요소 간에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표 20> 3, 4학년 전체의 KMAT 공인타당도

	가창 리듬	가창 가락	가창 음악적표현
KMAT 리듬	.305**	.207**	.217**
KMAT 가락	.196*	.332**	.324**

40) 현경실(2004), 전게서, p.110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화된 음악적성검사는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음악적성검사는 거의 없다. 이에 현경실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국악을 포함한 검사야말로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음악교수-학습방법의 개발로 바람직한 음악환경을 제공하고자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적성 검사인 현경실의 KMAT점수와 학생들의 음악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KMAT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KMAT의 타당도를 조사하기위해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를 검사하여 KMAT와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M초등학교 3~4학년 159명을 대상으로 가창 제재곡은 3학년에는 ‘소풍’을, 4학년에는 ‘종달새의 하루’를 선곡하여 한 사람씩 노래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 녹음을 들으며 본 연구자가 만든 평가기준에 의해 세 명의 채점자가 채점하였다.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기까지 다섯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첫번째 기준에서 리듬영역에는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과 쉼표 정확히 하기, 박자에 해당하는 강약 살려 부르기의 두 가지 요소를 평가관점으로 하였다. 가락 영역에서는 음정이 정확한가, 가락의 모양을 이해하고 부르는가의 두 가지 요소를 평가관점으로 하였다. 음악적 표현영역에서는 빠르기가 일정한가,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 부르는가,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으로 부르는가의

세 가지 요소를 평가관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하기에는 채점자의 주관이 삽입될 것이라 결론짓고 더욱 상세하게 만들었다.

네번째까지의 평가 기준들은 첫번째와는 반대로 하나의 요소들마다 5점씩 배분하였는데 이는 너무 상세하여 채점자들이 이 요소들을 모두 인지하고 채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다섯번째로 수정된 평가기준에서는 각 영역마다 네 가지의 요소를 모두 지키면 5점, 그 중 하나를 못 지키면 4점, 이런 식으로 하여 모두 못 지키면 1점이 되도록 배분하였다. 여기에서 가락영역만 수정하여 최종적인 평가기준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KMAT와 음악성취도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초등학교 학생들의 KMAT 리듬검사의 평균은 20.58, KMAT 가락검사의 평균은 22.92로 가락검사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3학년의 KMAT 평균은 41.83, 4학년은 45.38이다.

둘째, KMAT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계수가 리듬 검사에서 .85 가락 검사에서 .79로 적성검사로는 높게 나왔다.

셋째, 난이도의 평균이 리듬 검사는 68.9%, 가락 검사는 77.3%로 M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KMAT 문항난이도는 리듬 검사가 60~69%에 14문항, 가락 검사가 80~89%에 14문항이 분포되어있어 리듬 검사보다 가락 검사의 문항이 조금 더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균은 리듬영역이 4.17, 가락영역이 3.51, 음악적 표현영역이 3.85이고, 표준편차는 리듬영역이 .80, 가락영역이 1.06, 음악적 표현영역이 .91로 가락영역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가 조금 큰 것으로 보여졌다.

다섯째, 가창을 통한 성취도 검사의 채점자 신뢰도는 리듬이 .82, 가락이 .88, 음악적 표현이 .85이고, 하위요소 합계의 신뢰도는 .91이다.

여섯째, 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3학년이 리듬은 .359, 가락이 .412로 유의도 $p < .01$ 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4학년의 상관계수는 리듬이 .228, 가락은 .242로 높지는 않으나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서로 상관있음을 보였다. 3, 4학년 전체의 상관계수는 리듬이 .305, 가락이 .332로 유의도 $p < .01$ 수준에서 상관있었다.

KMAT와 음악성취도 검사의 상관계수가 .335로 높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p < .01$ 에서 상관이 있었으므로 KMAT가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검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KMAT의 신뢰도는 적성검사로는 높은 편이다. 신뢰도가 1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알맞은 문제는 즉, 난이도가 쉬운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표기하였다는 뜻이다.

둘째,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채점자간의 신뢰도가 .91로 나왔다는 것은 채점자들이 각각 채점한 결과가 음악성취가 좋은 학생에게는 높은 점수를,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는 결론을 얻기는 하였으나 더 좋은 신뢰도를 얻기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KMAT는 한국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검사하고 있다. KMAT의 공인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와와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KMAT가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KMAT의 타당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게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와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여 KMAT이 한국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성취도 검사의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가창을 통한 음악성취도 검사뿐 아니라 모든 음악성취도 검사의 평가가 객관적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여러 변수들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실시한 KMAT의 공인타당도가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나타내는 검사로서 타당함을 보였다. 이에 다른 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KMAT의 타당도 연구와 함께 KMAT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을 위한 음악적성 검사가 개발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3.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에 따른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한국의 초등학교 3~4학년의 모두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KMAT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화된 음악성취도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

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음악성취도 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가방법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표준화된 음악성취도 검사를 개발에 관한 연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음악성취도 검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개발함으로써 그 검사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서, 환경, 음악 등을 고려한 음악적성 검사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KMAT에서 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뿐 아니라 다른 연령의 음악적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고려한 음악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나아가서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 학지사.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길애경 · 임미경. (1997). 초등 음악교수법. 서울 : 수문당.

석문주 · 음악교육연구모임 공저. (2001). 음악과 수행중심 평가 :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서울 : 학문출판.

교육 인적 자원부. (2002). 초등학교 3학년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 인적 자원부. (2002). 초등학교 4학년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변창진 외 4명 공저. (1997). 교육평가. 서울 : 학지사.

김병성. (2003). 교육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2. 정기 간행물

현경실. (1998). “한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타당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7집. 한국음악교육학회. pp. 15~40.

현경실. (2000). “한국 음악적성 검사 개발 연구”. 국악교육 제18집. 한국국악교육학회. pp. 403~440.

현경실. (2002). “한국 음악적성 검사 예언타당도 연구”. 음악과 민족 제25호. pp. 215~229.

현경실. (1994).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28집 제2호. pp. 401~424.

임충기 · 박경자. (2000). “음악적성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pp. 257~276.

임충기 · 박경자. (1999). “음악성적, 음악적성, 일반지능의 관계 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pp. 25~48.

3. 번역서

H.F. Abeles, C.R. Hoffer, R.H. Klotman 공저. (1991). 방금주 역.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삼호출판사.

4. 국내 학위 논문

이성희. (2000). 음악성적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와 음악성적에 미치는 음악환경에 대한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배성애. (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정. (1997). HSMAT와 MAT 상관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희령. (1998). 아동의 음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적성 및 음악환경간의 상관관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수영. (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악환경과 음악적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점수. (2003). 한국 어린이를 위한 음악적성검사도구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재락. (2001). 음악성 검사에 관한 연구 - 개념과 실행방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주영. (2004).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가창곡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애. (2002). 초등 고학년을 위한 다양한 가창 지도법.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명희. (2000. 6). 음악과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창진. (2000). 음악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portfolio 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제7차 교과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육 중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교육대학교.

서정애. (2001). 국가수준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현장적용을 위한 음악과 평가도구의 개발 - 3학년 음악과 제재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5. 외국서적

Gordon, Edwin E.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G.I.A. Publications, Inc. 1987.

Colwell, R. *Silver Burdett music competency tests*, Morristown, N.J.:
Silver Burdett. 1979.

6. 웹사이트

성경희. 한국에서의 음악영재의 발굴과 교육의 방향.

<http://www.amadeusclass.co.kr>

주대창. (2000). “음악성의 음악교육적 의미”. 음악과 민족 제19호.

pp.216~243.

<http://www.um-ak.co.kr/gong/nonmun/ju-umaksung.htm>

ABSTRACT

A Validity Study of KMAT(Korean Music Aptitude Test)

Kang, Seok So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ic aptitude is the potential ability to learn music regardless of music study. Then, if the music aptitude of learners is known, efficient teaching method of music may be developed, as it is predictable how the degree of music achievement will be.

KMAT of Hyun Kyungsil(2004) is music aptitude test made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efficient music-teaching method and of offering desirable music environment by testing music aptitude of Korean students.

Th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validity of KMAT by examining correlation between KMAT score of Hyun Kyungsil which is music aptitude test and music achievement score.

This researcher executed music achievement test through singing to 159students(the 3d grade-the 4th grade) at M primary school, And, 3 evaluators graded by the evaluation standard of subject music of singing which was made at the end of trial and error of 5 times. Evaluation standard is divided into 3 domains of rhythm, melody, and

musical expression. If students do 4 elements to belong to each domain exactly, 5 marks is made. And, whenever they fail to do 1 element, demerit mark of 1 is given. The music of the 3rd grade is "Excursion", and the music of the 4th grade is "One Day of Skylark." Result analyzed through statistics program called SAS on the basis of grading result is as follows:

First, average of rhythm test of KMAT of students of M primary school was 20.58, and average of tone test of KMAT was 22.02. So, average of melody test was a little higher.

Second, as for the reliability of KMAT,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rhythm test was .85, and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melody test was .79. So, it showed high as aptitude test.

Third, as for the average of the degree of difficulty, rhythm test was 68.9%, and melody test was 77.3%.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composed of items to be suitable for students at M primary school, and it can be seen that items of melody test was a little easier than those of rhythm test.

Fourth, as for raters' reliability of achievement test through singing,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rhythm domain was .82,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melody domain was .88,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musical expression domain was .85. With this, it can be said that graders graded consistently.

Fifth, as for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of Pearson of music achievement through singing and KMAT, rhythm was .305 and melody was .332. So, it has correlation at the level of significance degree of

.01($p < .01$).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KMAT and music achievement test didn't show high. But, a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usic achievement and KMAT scores, it can be said that KMAT test the music aptitude of Korean students.

This researcher drew conclusion that study to examine the validity of KMAT will have to be progressed actively with this study, for the wide use of KMAT as music aptitude test by above the result.

In addition, conclusion that evaluation standard that this researcher made out is objective to a certain degree was obtained. But, more study to examine correlation with KMAT will have to be made by developing more objective music achievement test. And, this researcher suggests that continuous achievement of development of music aptitude test to consider the emotion, environment, and music etc. of our countr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by developing the methods of teaching-learning of music which considers the music aptitude of students.

<부록 1> 한국 음악적성 검사 답안지 양식

한국 음악적성 검사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리듬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예제 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락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예제 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번호	같음	다름
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번호	같음	다름
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1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7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8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9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부록 2> 담임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석사학위 논문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의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음악성취란 학교나 다른 교육 시설에서의 형식적인 학습의 결과로 시험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제재곡(가창곡)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을 음악 성취로 보았습니다.

음악적성 검사는 성신여자대학교 현경실 교수님이 개발하신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로 실시할 것입니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KMAT)’는 한국 학생들에게 알맞은 효율적인 음악수업을 실시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바람직한 음악 환경을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약 10여년 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KMAT는 Korean Music Aptitude Test의 약자로서 초등학교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음악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에 응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4학기

강 석 순 올림

<부록 3> 제재곡 악보

소풍

보통빠르게 외국곡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2. 졸졸 산골짜기 냇물이

우리는 산으로 놀러가요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요

하늘은 드높고 우리는 즐겁다
하늘은 푸르고 우리는 즐겁다

꽃들이 웃으며 반겨주네
새들도 노래로 반겨주네

종달새의 하루

조금빠르게 윤석중 작사
이은열 작곡

1. 하늘에서 - 굽어보 - 면 보리밭이 좋 - 아보여 -
2. 밭 - 에서 - 쳐다보 - 면 저하늘이 좋 - 아보여 -

종달새가 - 쏜 - 살같이 내 - 려 - 옵니다
다 - 시 또 - 쏜 - 살같이 솟 - 구 - 칩니다

비비배배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 다 하루해가칩니다